* 예비 기획안들
  + 처음 빙의 시점은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살아 남기 위해 도망치다가 패닉 상태에서 쇠창살 문 건너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, 건너편의 시체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지만, 갈 수 없어 절망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다. 그러다가 기절했다 눈을 떴는데, 자신이 쥐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, 쇠창살 건너편의 문 열쇠를 자신에게 가져온 뒤 문을 열고 그 장소를 탈출한다.
  + 빙의? 아니면 다른 용어가 있을까?

타이노족의 유일한 후손?